# 2000년 유통 SI업계 1위 목표 당찬 전진

제일씨앤씨라는 회사에 대해 최근 신문 등의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까닭에 SI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 이 회사는 설립된지 1년 밖에 안된 신생 SI기업이지만 제일제당그룹과 관련이 있다든지, SI업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라든지, 유통VAN사업에 진출했다든지 하는 내용들로 최근 지면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협회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제일씨앤씨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제일씨앤씨는 95년 4월 제일제당과 한국후지쯔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제일제당그룹의 계열사로서 정보통신전문회사이다. 제일제당이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제조·물류·유통분야의 업무 및 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이 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한 한국후지쯔의 기술적 노하우를 토대로, 제조·물류·유통관련 특화된 SI를 전개하여, 이 분야에서 국내 최대, 최고의 전문업체가 된다는 목표아래 국내 최대의 종합생활문화기업인 제일제당그룹과 세계적 기업인 후지쯔가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제일씨앤씨인 것이다.

설립 취지에 걸맞게 이 회사는 사업 시작 첫해인 95년 불과 9개월간 14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매출기준 국내 SI업계 20위를 차지하므로써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제일제당그룹이 매출기준으로 국내 재계 30위 정도의 서열임을 생각하면 상당한 실적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제일씨앤씨는 이러한 성장세를 몰아 96년도에는 2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정보시스템 Creator로서 고객무한감동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제일씨앤씨의 의지를 표현하는 "Total Solution Creator".

이러한 의지로 창립 1주년을 갓 넘긴 제일씨앤씨는 SI전문업체로 부상하기 위해 SI/컨설팅사업,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 SM(System Management)사업을 주력 사업군으로하여, 멀티미디어, 통신, 교육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SI/컨설팅사업은 그룹 내부 및 외부의 SI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조·물류·유통분야의 특화된 SI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SI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그룹 내부 프로젝트로는 마케팅 정보시스템, 신인사시스템, 외식업 본부시스템,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관리시스템, 공장 물류관리시스템, 제약생산관리시스템 등이 있으며, 그룹 외부 프로젝트로는 (주)옥시의 물류정보시스템, 화승상사 대리점 POS시스템, 애경백화점 EOS시스템, (주)희훈의 공장업무시스템, 정선직업훈련원시스템, 부천시·제주도청의 행망전산망 구축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VAN사업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 완료한 유통VAN서비스망을 기반으로하여 대형소매업체와 제조업체, 도매점간을 연결하는 수발주 대행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각 소매점의 상품동향, 매출동향 등을 종합분석해 제공하는 NET-POS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년말까지는 소매점의 정확한 POS데이타를 분석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SCAN 데이터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관련 사업 중 Web Site구축, 홈 페이지 작성, 인터넷 회선 재판매, 인트라넷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중이며,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향후 SI, 통신 등과 연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기존사업분야에 속하는 SM(System Management)사업은 제일제당그룹의 선진 정보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그룹의 각 계열사 정보시스템을 수탁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여년간 제일제당의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솔루션을 자체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룹차원의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토대로 정보인프라구축 컨설팅서비스 제공 및 외부 SM(Outsou-rcing)도 적극 추진중이다.

또한 그룹의 영상사업 진출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며, 95년 9월 그룹통신망인 "STA-NET"를 개통하여, 현재 전국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커버하는 자체 전산망으로 구축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망 구축사업,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사업 등을 통해 SI사업 이전에 근간이 되는 분야에도 진출하므로써, 종합정보통신서비스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이다.

제일씨앤씨는 이러한 사업부문 외에 사원교육 및 기술개발에도 타 SI업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 회사 임인혁대표이사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SI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자체 기술교육으로 극복한다는 이 회사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로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자체 교육센타를 설립하여 임직원들의 기술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SI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서도 제일씨앤씨는 꾸준히 고급인력을 확보, 양성하여 사업초기에 60여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현재는 200명에 이르며, 향후 사업확장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해 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원 연구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진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로 R&D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여 Only-one-Product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제일씨앤씨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대외 국책과제 수행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기술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외부에 자랑할 만한 번듯한 성과도 없지만, 제일씨앤씨를 방문하여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느낌은, "개성·창의·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는 회사 그리고 조그마한 성과에 결코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지 않을 회사, 이러한 회사가 바로 제일씨앤씨라는 것이다.

제일제당그룹 계열의 SI전문업체로 출범한지 1년.

이제 제일씨앤씨는 그룹의 "초일류 종합생활문화기업"이라는 비젼 달성을 위한 정보인프라구축 및 지원, 그룹 외부 고객들에게는 최적의 제조·물류·영업·유통 솔루션제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0년 인원 500명, 매출 1,000억 달성, 유통SI업계 1위라는 목표아래, 전 임직원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매진하고 있는 제일씨앤씨의 앞날은 바로 우리나라 SI업계의 밝은 내일을 보는 듯하다.

※제일제당그룹 URL : http://www.cheiljedang.com./

-이곳을 방문하면 제일씨앤씨에 대한 소개자료를 볼 수가 있음.